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Tuesday 21 May 2002 (afternoon)

Mardi 21 mai 2002 (après-midi)

Martes 21 de mayo de 2002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 Rédiger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겨울노래

산자락 덮고 잔들

산이젖느냐,

산 그늘 지고 산들

산이젖느냐,

5 산이 산인들 또 어찌젖느냐,

아침마다 우젓던 산까치도

간 데 없고

저녁마다 문살 굽던 다람쥐도

온 데 없다.

10 길 끝나 산에 들어섰기로

그들은 또 어디 갔단 말이나,

어제는 온종일 진눈깨비 뿌리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내리는 폭설

빈 하늘 빈 가지엔

15 홍시 하나 떨어졌는데

어제는 온종일 난을 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물소리를 들었다.

산이 산인들 또

어찌젖느냐.

(오세영, ‘겨울노래’, 정지용문학상 수상시인 기념시집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에서, 1999)

시의 구조와 그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에서 ‘산’ 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설명하시오.

1(b)

가난한 날의 행복

5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가난은 결코 환영할 것이 못 되니,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생활에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회상이 있다. 여기에 적는 세쌍의 가난한 부부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지만, 내게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안겨다 주는 실화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 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10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테니 그 때까지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 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  
15    다가 문득상 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王侯)의 밥, 걸인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낮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1984년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이 수필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수필에서 가난한 날의 행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 수필의 형식적 특징은 무엇인가?